

수용자의 해석과 설화의 다층적 의미*

-〈박장군과 이무기〉설화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인경**

1. 머리말
 2. 수용자의 해석과 설화의 의미층위
 - 2.1. 〈박장군과 이무기〉 설화를 바라보기
 - 2.2. 〈박장군과 이무기〉 설화에 시비걸기
 - 2.3. 〈박장군과 이무기〉 설화를 재해석하기
 3. 설화의 재해석과 현재적 의미
 4. 마무리
- * 부록 : 〈박장군과 이무기〉

<국문초록>

본 연구는 〈박장군과 이무기〉설화에 대한 신세대 수용자들의 해석을 통해 구비설화의 다층적 의미와 고전적 가치를 점검한 것이다. 이 구비설화는 홍수가 났을 때 강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던 이무기를 물리쳐서 마을을 구한 박장군이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죽게 된다는 내용으로, 이무기라는 水神에 대한 신화적 신성성과 박장군이라는 영웅의 죽음을 둘러싼 전설적 비극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 설화에 대한 수용자의 해석은 다채로운데, 水神에 대한 신성성이 약화되고 인간중심의 세계관으로 전환되어 가는 전승 의식의 변화를 엿보게 한다. 수용자들은 주로 이무기를 他者인 동물이 아닌,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집요하게 도전하는 주체적 존재로 바라본다. 또한 박장군의 파멸에 대해

* 이 논문은 2011년도 인제연구장학재단 교수연구년 지원에 의한 연구결과임.

** 인제대학교 한국학부 부교수(한국문화와 문화전략연구소).

무력으로 약자를 제압하려는 강자의 폭력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사회공동체의 公益과 사회적 소수자의 욕망이 충돌할 때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도출해 내고 있다. 특히 박장군의 죽음이 이 무기의 복수가 아니라 박장군 자신의 편집증적 강박증에서 야기된 것이라는 독창적인 해석이 주목을 끄는데, 이는 이 설화의 가치와 효용을 새롭게 조명함과 동시에 문학치료학적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구비설화가 갖는 의미의 개방성의 편폭이 확대되는 현장을 신세대 수용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추적해 보았다. 수용자들의 재해석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출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구비설화는 현재적 의미를 지닌 인문학적 사유의 寶庫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핵심어 : 구비설화, 해석, 수용자, 고전, 신화, 전설, 이무기

1. 머리말

본 연구는 <박장군과 이무기>설화를 대상으로 하여 古典文學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한편, 오랜 세월을 걸쳐 전승되어 온 구비설화가 현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미래에도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숙고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구비설화는 과거 특정 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전승자들에 의해 검증 과정을 끊임없이 거침으로써 존재할 수 있었던 “역사적 보존”이라고 할 수 있다.¹⁾ 새로운 수용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즉 전승자들의 재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설화 작품은 전승의 기회를 잃음으로써 古典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²⁾

1) “우리가 무엇을 ‘고전’이라고 칭할 때, 우리는 특정한 역사적 현상의 어떤 특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존재의 탁월한 「존재」 방식, 즉 참된 것을, 항상 새롭게 검증되는 과정 속에서 존재하게 하는 역사적 보존을 가리킨다.” 김정현,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의 관점에서 본 고전과 고전해석」, 『해석학연구』 23집, 한국해석학회, 2009, 8쪽.

2) “가다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고전에 담긴 진리는 현재의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 삶의 한 가운데서 그 타당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고전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이 과거의 검증을 거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고전에

구비설화는 청자가 설화를 수용하는(해석하는) 태도에 따라 작품의 가치와 전승력이 좌우된다는 점을 주목할 때, 설화수용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구비설화 전승 현장의 聽者들은 다음 세대로 설화를 전승해 갈 주체라는 점에서 문학 작품의 수용자를 넘어서 잠재적 작가들로 진화하게 되기 때문이다.³⁾ 따라서 구비설화의 연구는 설화의 전승 과정을 둘러싼 총체적 맥락을 두루 고찰해야 하는바, 화자의 구연 의도와 청자의 수용 태도 모두를 포괄해야 할 것이다.⁴⁾ 현재 이런 문제의식에서 설화 화자에 관심을 둔 연구는 간간이 이루어지는 듯하나, 설화의 수용자(청자)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아직 미미한 것 같다.⁵⁾

본고에서는 설화작품에 대한 화자의 의도와 수용자(청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추적하고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설화가 전하는 풍부한 메시지를 추출해 보고자 한다. 이런 문제의식은 한스 가다머가 주장하는 해석학적 이론에 기초한 것인데, 한스 가다머는 인간은 절대적으로 완성된 객관적 지식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인간의 모든 이해는 편견 혹은 先理解를 기초로 하여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상도 그 자체의 의미의 지평 혹은 맥락을 지

담긴 진리가 오늘의 우리에게도 진리일 수 있을지는 미정이다. 검증은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진리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진리로서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고전의 진리, 고전에 담긴 진리다. 고전을 대면할 때, 우리는 일단 그것이 진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인정이 검증을 통해 그 잠정성의 딱지를 뗄 때, 우리에게도 진리로서 정립되는 것이다.” 김정현, 앞의 논문, 9쪽.

- 3) “문학의 수용 측면을 고려하기 시작한 야우스는 무엇보다 수용의 주체인 독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고자 했다. (중략) 독자는 작가의 특정한 의도나 작품의 형식적 구조나 법칙을 찾는 존재에 그치지 않고, 문학사 서술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능동적인 참여자로 등장하게 된다.” 김용현, 『해석학 기반의 독일문학 연구와 교육에 관한 고찰-수용미학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51집, 한국독일어문학회, 2010, 50~51쪽.
- 4) 설화가 구연되는 연행 상황에서 전승자는 화자와 청자로서 존재한다. 이때 화자는 설화의 생산자, 청자는 설화의 수용자라고 할 수 있는데, 구비문학의 특성상 생산자와 수용자는 언제든지 그 역할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전승자’라는 용어로 포괄될 수 있다. 한편, 구연된 설화를 傳寫한 채록본을 읽어가며 연구하는 연구자나, 그것을 읽고 감상문을 작성하는 독자 역시 구비설화의 수용자인 동시에 잠재적 전승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이렇게 수용한 설화를 구연기회를 얻어서 구연함으로써 전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 5)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설화 수용자의 태도를 고찰한 연구로는 이인경의 논의가 있다. 이인경, 『제사설화에 대한 신세대의 해석과 구비전승의 향방』, 『국문학연구』 20집, 국문학회, 2010. ; 이인경, 『설화전승자의 의식변화와 ‘제사설화’의 미래 -<644-3 제사 차린 정 부족하다고 해 끼친 훈령>설화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52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0.

니고 있으므로 주체의 지평과 대상의 지평이 만나는 과정에서 상호 수정이 가해지고 하나로 융합됨으로써 출발시의 편견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⁶⁾

이 연구를 위해 <박장군과 이무기>⁷⁾설화를 대상으로, 청소년에서부터 청년에 이르는 젊은 세대에게 이 설화를 읽고 자유롭게 해석하여 감상문을 쓰도록 하였다.⁸⁾ 이들의 설화 해석을 통해 이 설화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다음 세대에도 이 설화가 전승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한편 젊은 세대들은 80년대에 생존했던 노인들이 구연한, 방언도 많고 발음도 불분명한 설화 구연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로 불가피하게 화자가 구연한 각편을 표준어화 하여 인쇄된 형태로 배부하여 읽게 한 후, 이에 대한 감상문을 얻었다. 이는 聽者 연구로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설화의 수용자 연구를 위해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과거로부터 口碑 형태로 전래되어 온 설화작품이 현재 전파 문학(방송매체, 인터넷을 통한 전파)이나 새로운 연행 문학(뮤지컬, 연극, 영화) 형태로 재창조되거나 기록 문화 형태의 다양한 문화콘텐츠(교육용 매체자료)로 재구성됨으로써 전승력을 새롭게 확장해 가고 있는바, 미래에도 그러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⁹⁾

6) 가다머의 해석학 이론에 대해서는, 조지아 윈키, 이한우 역,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 사상사, 1993; 가다머, 한스 게오르크, 이길우 외 역, 『진리와 방법: 철학적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 문학동네, 2000; 김정현, 앞의 논문, 2009; 김용현, 앞의 논문, 2010; 양유성, 『이야기치료』, 학지사, 2004를 참조하였다.

7) 신현조 구연, <박장군과 이무기>, 『한국구비문학대계 8-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26~329쪽.

8) 구비설화 聽者에 대한 연구는 원론적으로, 이야기관에서 구연된 설화를 들은 청자가 그 설화를 어떻게 이해하여 어떤 형태로 다시 구연을 하는가를 관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연발생적인 이야기관인 경우에 한 이야기관에서 특정 설화를 들은 청자가 연구자가 관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설화를 다른 청자에게 다시 구연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녹음기를 사용하여 구연자의 목소리로 설화를 들은 청자의 감상을 녹취하여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부족과 공간상의 제약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였다. 이번에 설화의 수용자로 참여한 8명의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서울, 대전, 김해, 부산 등 모두 다른 공간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후에는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시도해 볼 생각이다.

9) 또한 현재 구비설화 연구자들조차 화자의 구연본 청취가 아닌 인쇄된 채록본을 독해하는 방

이와 같은 이유로, 본고에서는 설화 ‘청자’들의 청취와 구연 방식을 통한 설화의 “口碑” 전승의 문제보다는, ‘수용자’들의 재해석을 통한 설화문학의 다양한 가치 발견과 지속적인 “傳承”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비록 구비의 형태만은 아닐지라도 특정 설화작품이 미래에도 여전히 전승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시간을 초월하여 그 가치를 검증받은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논의 방식은 우선 <박장군과 이무기>설화가 전하는 메시지를 화자의 의도와 학계의 일반적 논의에 기대어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에, 이 설화에 대한 수용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설화텍스트에 담긴 의미정보와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개성에 따른 설화 해석의 편차를 단계적으로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2. 수용자의 해석과 설화의 의미층위

본 연구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수용자들에게 배부하여 <박장군과 이무기>설화에 대한 8편의 감상문을 얻었다.¹⁰⁾

* 아래의 설화를 읽고 그 의미를 자유롭게 해석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포함되도록 감상문을 적어주세요. (단, 존재 방법이 없는 기본형을 사용하여 완결된 한 편의 글로 서술해주세요.)

식으로 설화를 수용하여 연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구비설화를 문화콘텐츠로 가공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 역시 이야기관을 직접 찾아서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조사자들이 채록하여 정리한 텍스트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구비문학의 ‘수용자’ 연구는 연행 현장에서의 청자와 채록된 설화 텍스트의 독자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진행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일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에 양자 사이의 차별성을 세분화하여 논의해야 할 것이다.

10) 필자의 조카 3명(중학생, 고등학생, 회사원)과 제자 5명(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부터 각각 1편씩 이 설화에 대한 감상문을 얻었다.

1.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주제, 의미)는 무엇일까요?
2. 이 이야기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이 이야기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자신이 박장군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이 이야기에서 특히 인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박장군과 이무기〉¹¹⁾

밀양군에는 초동면이라는 곳이 있다. 그 초동면 상당골에는 박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힘이 장사였고 각종 무기를 잘 다루었는데 특히 활을 잘 쏘았다. 사람들은 그 박씨를 박장군이라 불렀다. 하루는 박씨가 저녁을 먹고 강둑에 나갔는데, 4일이나 계속 비가 내려 강물이 불어 독이 넘칠 정도였다. 그러자 강변에 모여 있던 주민들이 모두 ‘저 독 터지면 우리는 다 죽는다.’면서 아우성을 쳤다.

그때 마침 강에는 무엇인가 강의 흐름을 가로막는 물건이 있었다.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 그것은 짐승이었는데, 그 짐승이 강의 흐름을 막아서 독이 터지려하고 있었다. 그러지 않아도 비가 많이 내려 독이 위태로운데, 그 짐승이 강의 흐름을 막아서 강둑은 거의 무너지기 일보직전이었다. 사람들은 그 짐승을 없애려 했지만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모두 죽게 되었다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박장군이 활을 가지고 와서 강을 잘 살펴보니, 강에 용이 되지 못한 강철이(이무기, 이십이)가 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다. 박장군은 이무기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무기에게 활을 쏘았다. 활을 맞은 이무기는 괴로워서 튕굴다가 도망을 쳤다. 그러자 강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마을 주민들 이제 살았다며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일을 잊었을 무렵이었다. 하루는 박장군이 아침밥을 먹는데, 반찬 중에 고깃국이 있었다. 박장군이 무슨 국인지 궁금해서 숟가락으로 국을 저어 보았는데, 국 속에 무엇이 건드러지면서 덜컥덜컥 소리가 났

11)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설화 각편을 수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어화 하여 제시한 것이다. 화자의 구연 설화 각편 원문은 본 논문의 부록에 수록해 두었다.

다. 손가락으로 그 물건을 건져서 자세히 살펴보니 자기가 이무기에게 쏘았던 화살촉이었다. 그래서 방문을 열고 물어보았다.

“여기 좀 와 봐라.”

그랬더니 자기 며느리가 왔다. 박장군이 며느리에게

“얘, 이게 무슨 고기를 넣은 국이나? 그리고 왜 이 국에 화살촉이 들어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며느리가

“예, 엇그제 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한 손 샀는데, 이 국에 넣은 고기가 바로 그 고등어입니다.”

라고 했다. 박장군은 마음속으로 ‘옳지. 그때 강에서 화살을 맞은 이무기가 나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얘, 이거 물려라. 안 먹는다.”

라고 하면서 자기 가족들도 못 먹도록 하고, 그 국을 모두 마을 옆의 다리 아래에 뿌렸다. 그리고 남은 반찬으로 식사를 마치고 그 일은 잊고 지냈다.

그 후로 또 세월이 한참 흘러서 우연히 박장군이 보니 자신이 고깃국을 버린 그 자리에 딸기가 자라나 있었다. 거기에 열린 딸기송이들도 잘 익어서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웠다. 박장군은 또 ‘옳지, 이놈이 나에게 원수 갚으려고 이러나 본데, 안 먹는다. 안 먹어.’ 하면서 딸기송이를 모두 따서, 솥에 넣고 삶아서 산으로 올라가 딸기를 모두 버렸다. 그리고 다시 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쯤 지나 가을이 되었는데, 박장군이 그 근처를 지나다가 그 자리에 띠풀이 무성하게 자라난 것을 보았다. 띠풀은 돛자리와 비슷한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였다.

박장군이 생각하기를 ‘저건 그냥 풀인데, 내가 저 풀을 베어 자리를 만들어 깔아도 이무기가 더 이상 복수할 방법은 없겠지.’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불러서 띠 풀을 베어, 찌서 말려 명석자리를 짰다. 그리고 자기가 자는 숙소에 그 자리를 펴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잤다. 여러 날을 그 위에서 자도 이상이 없었다. 하루는 그 자리 위에 누워서 자려는데 난데없이 등이 뜨끔했다. 그래서 자리를 만져보니까 자기가 며칠 동안 깔고 자던 명

석자리에서 가시 하나가 돌아 있었고 그 가시에 등을 찢린 것이었다. 박장군은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며 가시를 뽑아서 버렸는데, 그 가시에 찢린 자리에서 상처가 점점 커졌다. 박장군은 온갖 약을 다 써보았지만 상처는 점점 커지기만 할 뿐이었다. 마침내 박장군은 그 상처로 인해 죽고 말았다.

(화자는 이야기를 종결하면서 이진 미물인 짐승이라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꼭 갓고야 만다는 전설이라고 덧붙였다.¹²⁾)

다섯 항목의 질문이 포함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용자들에게서 감상문을 얻은 이유는, 그들이 이 설화를 전승할 ‘잠재적 화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설화의 전승과정은 전적으로 전승자의 개성과 기억력에 의존한다. 설화 전승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합당한 내용은 잘 이해하고 기억하지만 그렇지 못한 내용은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¹³⁾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화의 변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은 기억심리학의 Bartlett의 이야기 전달하기 실험이나 schema 이론을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다.¹⁴⁾

그러나 이처럼 수용자들의 개성과 태도에 의해 특정 설화유형의 전승 방향이 결정되지만, ‘구연과 청취’를 통한 특정 설화의 전승이 一回性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도 간과될 수 없다. 설화는 단선적인 경로가 아닌 복합적인 경로로 전승되기 때문이다.¹⁵⁾ 전승되어 온 설화의 서사구조가 이야기공

12) 수용자들이 화자의 해석에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자의 이런 말을 삭제한 후에 설화 자료를 배부하였다.

13) 화자들은 자신이 과거에 전해 들었던 설화의 내용에서 자신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나 인상적이었던(자신의 관심을 끄는) 요소를 선명하게 기억함으로써, 그 부분을 강조하여 설화를 구연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부분은 쉽게 망각하고 생략해 버리거나 심지어는 설화의 줄거리를 다른 방향으로 왜곡·변형하는 방식으로 설화를 구연하게 된다.

14) 설화의 변이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의 ‘기억과 전달’ 과정을 연구한 기억심리학 분야의 다양한 실험과 관찰 결과가 크게 도움이 된다. Bartlett의 schema 이론에 대해서는 C. 리처드 팝 편, 이관용 외 역, 『人間記憶 및 認知研究法』, 범문사, 1988, 371~375쪽 ; Stephen K. Reed, 박권생 옮김, 『인지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0, 332~338쪽 참조.

15) 한 수용자가 특정 설화유형의 구연상황을 딱 한 번만 경험하지 않고, 다른 상황에서 다른 화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설화의 전승은 이전에 자신이 전해들은 내용을 기억하여 구연하는 화자들의 개성과 능력에 좌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화는 일정한 유형(Type)의 형태로 전승되는바, 구연과 청취가 일회적·단선적이지 않고 중층적·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동체에 공유된 것이라면 특정 화자가 생략하거나 왜곡한 설화의 구조와 요소가 다른 화자를 통해서 보충되거나 교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특정 화자의 가치관에 공감하는 수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는 이야기공동체 전체의 가치관의 변화와 상호 작용하면서 결국 설화유형의 변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일정한 설화유형이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왔다는 사실은 과거로부터 다수의 화자들이 그 설화유형에 담긴 가치관에 동의해 왔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가면서 전승자들의 가치관이 변화하여 특정 설화유형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수용자들이 대다수가 된다면, 그 설화유형은 점차 전승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또한 이전의 설화유형을 대신하는 다양한 변이형들이 새롭게 나타나서 수용자들의 공감을 크게 얻게 된다면 그 변이형 설화가 이전의 것을 대신하여 전승력을 획득함으로써 새로운 설화유형으로 정립될 가능성이 높다.¹⁶⁾

2.1. <박장군과 이무기> 설화를 바라보기

<박장군과 이무기>설화를 이무기에 초점을 맞추어 읽어 보면, 승천을 하려던 龍蛇神의 실패담으로서 신화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이무기(이시미, 강철이)가 폭우가 내리는 날에 용이 되어 승천한다는 내용은 우리에게 익숙한 신화적 모티프이다. 용사신이 승천을 방해받게 되자 신격이 그 방해자를 해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복수한다는 내용의 설화가 다수 전승되고 있다.¹⁷⁾ 인간이 龍 神格의 승천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고는 곧 인간이 水神系 神格의 신성함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

16) 모든 화자들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설화의 문서(repertory) 가운데 자신의 가치관에 잘 부합하는 설화를 선택하여 구연하게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박장군과 이무기> 설화의 주제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거나(기억력 부족) 그 가치관에 동의하기 어려운(선호하지 않음) 수용자들은 미래에 굳이 이 설화를 전승하려고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수용자들이 이 설화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런 서사내용에 대해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지에 따라서, 미래에 이 설화를 구연하게 되는 경우 그들의 구연 각편(version)의 스토리 전개가 다양한 방식으로 변이될 수 있다.

17) 이지영, 『龍蛇神昇天譚의 측면에서 본 <평과 구렁이>』, 『고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고전학회, 2007 참조.

다.18)

물과의 친연성을 지니는 水神의 이미지에 비추어 이 설화를 읽어보면, 이무기는 폭우가 내리는 날 곧 범람할 것만 같은 강물 속에서 풍부한 물과 함께 처음으로 등장하는바, 이는 수신에 걸맞은 이미지라고 하겠다. 화살을 맞고 괴로워하다가 도망치는 이무기의 모습은 신격의 神聖性이 손상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무기가 떠나가자 강물이 급히 빠져버린 것은 수신의 治所가 훼손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로 화살촉이 박힌 채 물 밖으로 나온 고등어의 이미지는 여전히 水生 生物이란 점에서 수신인 이무기의 殘影을 간직하고 있고, 고등어국을 내버린 다리 밑에서 돌아난 딸기는 수분을 풍부하게 포함한 식물이란 점에서 물과의 친연성을 여전히 갖는다고 하겠다. 사실 다리는 물 위에 건설된다는 점을 상기할 때 다리의 밑은 물이 고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산 위에서 자라난 띠풀은 물과의 친연성이 급격히 약화된다. 그런 까닭에 수분을 머금고 있는 고등어국이나 딸기를 보면서 수신인 이무기의 복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박장군이, 띠풀에 대해서만큼은 방심을 하였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박장군은 띠풀을 베어 찌서 말려 명석자리를 만들어서 깔고 자는데, 이것은 수분을 완전히 증발시켜 그 잔해를 박제화시킴으로써 수신을 완전히 제어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박장군과 이무기>설화를 박장군을 중심으로 해석한다면, 이 설화는 순간의 실수로 인해 세계의 횡포에 굴복하고만 한 영웅의 인간적 비극을 보여주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勇力과 의협심을 두루 갖추고 직관이 뛰어나며 용의주도한 박장군이라는 영웅이, 이무기와 대적하여 마을 사람을 구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의 방심으로 하찮은 가시에 찢려 최후를 맞았다는 비장한 이야기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작 이 설화를 구연한 화자는 이 설화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였을까? 화자는 “그러이 거 미물 짐승이라도 원수를 갚자 카문 꼭 갚고 만다는 전설이지요.”라면서 구연을 마무리하였다.19) 미물이라도 원한이 맺

18) “용 신격도 인간에게 퇴치되거나 승천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간이 수신계 신격의 신성함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파도 연관되어 있다.” 이지영, 앞의 논문, 188쪽.

19)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처럼, 수용자들은 화자의 이런 해석을 알지 못하였기에 이에 간접반

하면 반드시 복수를 하니 이를 조심하라는 의도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절대로 미물의 원한을 사는 일을 삼가라는 것일 수도 있겠고, 미물에게 원한을 살 것을 했다면 그의 복수를 철저히 경계하라는 의미도 될 것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수용자들은 이 화자의 구연의도 대로 설화를 해석하고 있을지 자못 궁금해진다. 이 설화에 대한 수용자들의 다양한 반응과 해석을 살펴보기로 한다.

○ 이찬수(남, 20세)

‘박장군과 이무기’ 이야기를 읽고 처음 떠올랐던 단어는 운명이다. 이무기는 고등어와 딸기, 풀을 통해 복수를 하려고 했다. 박장군은 이를 눈치 챌지만 결국 죽게 된다. 박장군이 이무기를 죽이기 위해 화살을 쏘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려는 모습에서 영웅적 면모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장군이 방심한 채 명석자리에 돌아있는 가시로 인해 죽게 되는 장면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는 느낌이 들었다. 나라면 풀조차도 의심하고 그 풀을 태워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도 계속 이무기의 복수가 의심스럽다면 그 마을을 떠났을 것 같다. 의심스러운 일을 처리할 땐 끝까지 의심해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나는 박장군은 끝까지 이무기의 복수를 피해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국 박장군은 운명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다. 인간에게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이찬수는 이 설화에서 인간의 순간적인 실수를 안타까워하면서 한 번 정해진 운명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느낀다.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왜소한 자아의 비극성을 진지하게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운명론적 사고를 보여준 이 수용자가 이 설화를 통해 어떤 새로운 삶의 전망을 얻었을지는 분명히 알기 어렵지만,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의심하고 단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다졌을 법하다. 설화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수용자의 이런 태도는, 설화의 서사 전개에 적극적으

로 개입하여 해석을 시도하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망하는 입장인 것이다.

2.2. 〈박장군과 이무기〉 설화에 시비걸기

앞에서 살펴본 이찬수의 감상문에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설화를 관망하는 수용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반면, 아래의 감상문들에서는 설화 속으로 뛰어들어 서사적 현실을 개선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수용자들의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 허동규(남. 21세)

이 설화에서 박씨가 힘이 장사이고 활을 잘 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는 이러한 자신의 강점을 내세워서 단지 강물이 독을 막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무기를 쏘아 죽인다. 물론 이무기를 그 자리에 그대로 뒀다면 독이 붙어서 마을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위협감 때문에 영웅 심리에 휩싸여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박씨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했더라면 굳이 이무기를 죽여서 떠내려가게 하지 않고도 자신의 엄청난 힘으로 이무기를 들어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후로 박씨는 고등어국과 그 국을 버린 자리에 난 딸기, 그리고 그것을 버린 자리에 난 풀을 보고 이무기가 자신을 해치려한다는 김새를 알아차리고 조심한다. 애당초에 이무기를 죽이지 않았다면 그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었을 터인데, 고생을 사서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강자의 마인드가 가득한 박씨는 마지막에 조그마한 풀을 알보고 명석을 만들었다가 뽕죽한 작은 가시에 찢려 결국 죽고 마는데, 아무리 강자라 하더라도 약자를 우습게 보고 행동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허동규는 이무기를 ‘쏘아죽이지’ 말고 박장군의 힘으로 들어 올려서 치웠더라면 비극적인 사태를 원천적으로 막았을 것이라며 박장군을 비난한다. 또한 주인공이 맞이한 죽음은 영웅심리 내지는 자신을 강자라고 여기는 자만심 때문에 약자를 무시한 그가 자초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이렇게 허동규

처럼 박장군을 평가하게 되면 이 설화에서는 심각한 비극성 같은 것을 찾기가 어렵다. ‘세상모르고 잘난 척하다가 죽은’ 어리석은 자의 당연한 최후이기 때문이다. 허동규에게 이 설화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한 번 더 생각하기’ 그리고 ‘강자라고 하여 약자 앞에서 으스대지 않기’라고 요약된다.

그런데 정작 허동규 자신은 박장군이 이무기를 정말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가능할지, 그러다가 이무기에게 오히려 잡아먹히게 되거나 앓을지에 대하여서는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는다. 용사신 신화의 경우에 용이 되어 승천하려는 이무기를 방해하면 반드시 그 신격의 복수를 부른다는 서사적 개연성을 고려해 볼 때, 허동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리 효과적일 것 같지 않다. 또한 그는 박장군이 ‘이무기를 쏘아 죽였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 설화에서는 “박장군은 이무기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무기에게 활을 쏘았다. 활을 맞은 이무기는 괴로워서 뒹굴다가 도망을 쳤다.”라고 되어 있다. 도망친 이무기가 죽었는지 여부는 사실상 알 수가 없다. 신화적 논리에 기대어 해석한다면, 이무기의 복수는 죽음보다는 ‘승천을 방해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허동규의 이런 설화 해석은 수용자의 先理解가 설화의 틈새를 메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정진형 (여, 14세)

이 설화의 의미는 ‘누군가를 노하게 하면 언젠가 반드시 그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 박장군은 고깃국을 버리기도 하고, 거기서 돌아난 딸기를 삶아 버리기도 했지만 결국 거기서 돌아난 띠 풀에 의해 죽고 말았다. 아무리 약삭빠른 사람이라도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했던 것이다. 이무기가 복수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박장군이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자신에게 한을 품은 이가 있음을 알게 되어 반성은 하지 못할망정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한심해 보였다. 내가 박장군이었다면 애초에 독이 무너지려 할 때 이무기를 그 자리에서 스스로 떠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거나, 이무기가 복수하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무기를 위한 곳을 한탄든지 해서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인상 깊은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무기가 한이 풀리지 않아 박장군에게 복수하려고 한 점이다.

아마 그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는 것은 이무기가 이루고 싶었던 꿈, 즉, 용이 되는 것을 박장군 때문에 그르쳤기 때문일 것이다.

정진형은 이 설화를 ‘승천하려는 욕망이 강렬했던 이무기를 좌절시켜 분노케 한 죄를 지은 박장군이 결국 벌을 받게 된 이야기’로 요약하고, 그러므로 무릇 ‘인간은 타인을 분노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주제를 파악한다. 이 수용자는 이무기가 강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유를 승천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바, 앞의 수용자들이 이무기를 철저히 타자화된 존재로만 바라보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저 타자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던 동물(이무기)의 욕망을 이 수용자는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욕망으로 해석하고 있다.²⁰⁾ 이는 이무기를 인간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배당하는 타자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여 스스로 강을 떠날 수 있는 그리고 좌절된 욕망을 위로받고자 하는 주체적 존재로 인식한 것이다.

정진형은 박장군이 이무기의 복수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상대방의 원한을 풀어줌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그저 회피하지만 말고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는데, 박장군은 그렇지 못했기에 좌절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런 해석에는 강둑이 터질 위험에 처하게 된 마을 사람들을 구한 박장군의 영웅적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그로 인해 죽음까지 맞이한 박장군의 희생에 대한 연민과 평가가 빠져있다. 사실상, 위기에 처한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에만 시종일관 골몰했던 박장군의 입장에서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무기의 승천 욕구와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동

20) 심우장은 동물설화의 존재양상을 작품에서 형상화된 의인화된 동물이 주체화과정의 어느 국면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방식으로 살펴 본 바 있다. 그는 라캉의 <상상계 / 상징계 / 실체계> 이론을 원용하면서 ‘동일시되는 동물’, ‘말하는 동물’, ‘죽어가는 동물’이라는 술어를 제시하여 <까치의 보은>설화의 구체적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논의에 따르면, <박장군과 이무기>설화에 등장하는 이무기는 문면 상으로는 ‘죽어가는 동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용자들은 이무기를 곧잘 ‘동일시되는 동물’이나 ‘말하는 동물’로 해석하고 있다. 심우장, 「동물설화와 인간주체와의 과정-〈까치의 보은〉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114쪽 참조.

시에 지킬 만한 충분한 시간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없었다는 정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해석은 승천을 원했던 이무기가 강을 범람시켜 인간을 죽이려고 의도한 바가 애초부터 없었듯이, 박장군 또한 이무기의 승천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간과한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해석인 셈이다.

한편 방수정은 박장군이 이무기를 퇴치의 대상이 아닌 대화의 상대로 여기를 요구하는바, 수용자의 이런 해석에 이르러 이무기는 인간과 대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가는 ‘말하는 동물’로 진화하고 있다.²¹⁾

○ 방수정 (여. 22세)

이 이야기를 읽고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이다. 박장군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이무기에게 화살을 쏘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이무기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한쪽의 입장만 생각하고 이무기에게 활을 쏘았던 박장군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박장군이라면 강에 있었던 이무기를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왜 하필 저 곳에 있을 까?’라는 생각으로 이무기에게 다가가 그 곳에 있는 이유를 물으며 폭력보다는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인상 깊은 것은 박장군의 죽음이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온다.’는 한국의 속담을 완전히 빗겨간 장면이기 때문이다. 비록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한 행동이었지만, 이무기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했더라면 박장군은 결코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용자는 이 설화에서 因果應報라는 메시지를 발견한다. 박장군이 착한 일을 하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무기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폭력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이무기를 제압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방수정의 이런 해석은 설화 문면에서 이무기가 과연 인간의 말을 이해하는지, 인간이 제안한 협상에 순순히 응해 줄지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음을 간과한 상당히 주관적인 해석이다. 만일 박장군이 이무기와의 협상을 신속하게 타결하지 못한다면, 강둑이 터져 마을이 물속에 잠겨 버릴 수도 있다.

21) 심우장, 앞의 논문 참조.

또는 이무기에게 잘못 다가갔다가 그의 심기를 잘못 건드려서 도리어 박장군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설령 방수정의 요구대로 ‘박장군이 이무기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하더라도 역시 박장군은 죽게 되었을지 모르며, 박장군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전체가 함께 죽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도대체 왜 이런 해석이 수용자들의 감상문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일까? 이런 해석은 혹시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온 이 설화가 담고 있는 본래의 의미에서 한참 떨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난다.²²⁾ 가령 이 설화가 ‘박장군이 이무기와 용감하게 싸우다가 큰 부상을 입어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었지만, 마침내 이무기를 퇴치하여 마을 사람들을 구해 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위해 頌德碑를 세웠다.’는 이야기로 종결되면 어떻게 될까? 박장군이 부상을 당한 것은 그가 이무기의 욕망을 무시한 탓이기에 이는 因果應報이자 自業自得이라면서 여전히 박장군을 비난하게 될까?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부상까지 무릅쓴 박장군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칭송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용자들은 박장군의 희생을 높이 평가하기는커녕 그를 비난하는 것일까? 이는 이 설화의 서사적 추동력이 始終 복수를 향한 이무기의 집요한 욕망으로부터 생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박장군의 행위는 이 수용자들에게 승리를 쟁취한 영웅이기보다 흡사 도전자를 피해 용의주도하게 몸을 숨기는 소인배처럼 비치고, 이무기의 끈질긴 挑戰에 비해서 박장군이 보여 준 應戰의 敍事는 일견 비겁하거나 초라해 보였던 것이다.

마지막 대결에서 결국 죽음을 당하고 영원한 패자로 남은 박장군의 실패는 수용자에게 깊은 반성거리를 남겨 주었다. 애초에 인간은 이무기와는 절대로 싸우는 게 아니었다는 悔恨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오직 자신의 욕망을

22) “가다머는 역사적 대상이나 그것에 대한 해석의 객관성을 부정하지만, 거듭 우리가 전승의 목소리를 들을 때, 전승이 ‘자신의 고유한 의미 가운데 자신이 들리도록’ 해야 함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희망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dem uns Nächsten)에 사로잡혀 ‘과거를 우리 자신의 의미 기대에 성급하게 동화(Angleichung)’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김정현, 앞의 논문, 16~17쪽.

위해 무고한 人命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는 이무기의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인 횡포를 그저 지극히 눈감아 감내하는 게, 박장군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였다는 말인가?

수용자들은 이무기의 원한에 주목하여 좌절된 그의 욕망을 동정하면서도 정작 박장군의 욕망이나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따뜻한 관심을 보여 주지 않는바, 박장군의 행위를 그저 관망하거나 오히려 그를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이는 본능적 욕망으로 푹푹 멍친 동물인 이무기가 아니라 이성적 판단을 갖춘 인간인 박장군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하다고 여기는 수용자들의 암묵적 합의와 先理解에서 기인한 현상인 듯하다.

앞의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임진상 역시,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했던 박장군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불행을 자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임진상 (남. 27세)

이 이야기에서 박장군은 힘이 장사이고 모든 무기를 잘 다루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마을을 위기에 빠트린 이무기를 쫓는 박장군의 영웅적 행동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박장군은 이무기의 복수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죽음을 맞게 된다. 이 이야기에서 잘못된 부분은 박장군의 문제해결능력이다. 먼저 이무기를 쫓는 과정에서 빠른 결단력을 보여주었지만, 이무기를 죽이겠다는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그냥 쫓아버린 것이다. 이무기는 용이 되지 못한 영물이다. 활을 쏜다고 해서 죽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좀 더 확실한 방법을 강구하여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 상황의 급박함은 있었지만, 나라면 그 상황에서 이무기를 확실히 죽이지 못한다면, 우회적으로 새로운 물길을 내는 방법을 썼을 것 같다. 그렇다면 마을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고, 이무기를 쫓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을 벌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박장군은 멍석 가시에 찢려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이것 또한 박장군의 선택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무기에게 활을 쏘아 쫓아버리지 않았다면, 계속되는 이무기의 복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선택의 중요성이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

의 연속이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뉘어 지처럼 끝없이 뻗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상기고 모든 일을 선택함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앞에서 살펴 본 수용자들은 박장군이 이무기를 ‘설득하여 퇴치하지’ 않고 활을 쏘았기 때문에 이무기의 복수를 불러일으켰다고 비난하는 것에 반해, 임진상은 靈物인 이무기를 건드리지 말고 대신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강의 범람을 막았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박장군은 용맹했을지는 모르나 지략이 부족했다는 평가인 것이다. 이런 해석에는, 마을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하고 죽음을 맞이한 박장군의 희생이 보여 주는 숭고함이나 억울함의 정서가 상당히 희석되고 있다. 박장군의 비극은 지략이 부족하고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 자초한 불가피한 불행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임진상은 이 설화에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 결과가 계속 꼬리를 물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람은 늘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찾아낸다. 그는 자신의 승천만을 위해 무고한 마을 사람을 위기에 빠뜨린 이무기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비난을 하지 않는다. 이는 이무기를 인간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말하는 동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애초부터 이무기는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접근하여 일방적으로 퇴치해야 할 위험한 대상으로서 “타자화” 하고 있다.

아래 이가영의 감상문에서는 한층 더 예리한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이가영 (여, 24세)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짐승의 목숨이라고 하여 인간이 이를 당연하게 빼앗을 수는 없으며, 살육이라는 업으로 인해 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다. 박장군이 이무기에게 해를 입히고 난 후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이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부분에서, 박장군 또한 이무기에게 해를 입히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박장군이 이무기에게 해를 입힌 것은 맞지만 그것은 독이 터져서 마을 사람들이 죽게 될 위기에 처했

기 때문이다. 박장군이 자신의 능력을 공공선을 위해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박장군과 같은 능력과 마을내의 입지를 가졌다면 나도 역시 이무기에게 활을 쏘아서 마을의 독이 터지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다. 다만, 이무기의 복수가 두려웠다면 난 끝까지 쫓아가서 확실히 죽였을 것 같다. 인상 깊은 것은 이 설화는 설화문학에 자주 나타나는 권선징악의 형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수인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무기는 “악”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런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악”을 차단한 박장군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결국 그의 죽음이었다는 점이 탐탁지 않다. 그것이 정말 이무기의 복수였건 아니면 가시를 제거하는 데 소홀했던 박장군의 실수였건 간에 말이다.

이가영은 공공의 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박장군에게 주어진 보상이 어이없게도 그의 죽음이었다는 不條理한 사실에 시비를 건다. 그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집단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 박장군 자신이 오히려 그로 인하여 희생되고 만다는 서사전개의 불합리성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와 그로 인한 수혜자가 각기 별개라면,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봉사하려고 나설 사람이 있겠는가?’ 라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가영은 박장군과 같은 처지에 놓인다면 자신도 역시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이무기에게 활을 쏘았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태도는 앞에서 살펴 본 수용자들과는 달리, 박장군의 욕망과 정서에 관심을 보이며 공감한 결과이다. 이 설화의 화자는 마을에 닥친 위급한 상황을 “그러지 않아도 비가 많이 내려 독이 위태로운데, 그 짐승이 강의 흐름을 막아서 강둑은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사람들은 그 짐승을 없애려 했지만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모두 죽게 되었다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라고 서술한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박장군이 이무기에게 활을 쏘아서 강의 범람을 막은 것은 비단 마을 사람들의 생명만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도 지켜내기 위한 일이기도 하다. 한편 짐승을 없애려고 하지만 방도를 찾지 못했던 凡夫들 사이에서, 남다른 능력을 지녔다고 추앙받아 온 박장군으로서

영웅적인 행위를 보여 주길 바라는 수많은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강박증을 이겨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자 강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마을 주민들 이제 살았다며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라는 서술은 박장군의 영웅 심리를 부추기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영웅은 집단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싸우고 그로 인하여 그 집단에 의해 영웅으로 떠받들려지는 법이다. 박장군은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반드시 챙기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먹을까 두려워하여 고등어국을 모두 거둬서 다리 밑에다 버리고 딸기도 모두 따서 삶아 버리는 세심한 사람이다. 사실 박장군의 영웅 심리는 그의 자아정체감의 핵심인 것이다.

이가영은 자신이라면 이무기가 복수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쫓아가 이무기를 확실히 죽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나중에 이무기가 고등어, 딸기, 띠풀이 되어서 박장군을 죽이려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곧 ‘죽은’ 이무기가 원혼이 되어서 복수를 시도한 것이 된다. 따라서 박장군이 이무기를 그저 ‘쫓아냈든’ 확실하게 ‘죽였든’ 그에 관계없이 어차피 원한에 찬 이무기의 복수를 원천봉쇄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한편 이가영은 인간이 짐승을 살육하면 그 업보로 인해 해를 입게 되며 짐승에게 危害를 가한 인간은 스스로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메시지를 찾아내고 있다. 이런 해석은 이 설화를 이무기의 원한이 아니라 박장군의 죄책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설화에서 박장군을 집요하게 괴롭힌 것은, 사실 이무기라는 실체이기보다는 본인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생성되어 출몰하는 이무기의 복수에 대한 불안과 공포라고 할 수 있다. 이가영은 박장군의 이런 심리 상태와 고통을 ‘살육을 저지른 인간에게 부과된 업보’라고 파악한다. 그리고 업보란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이기에, 박장군이 그토록 경계했지만 결국 극복할 수가 없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이런 박장군의 자의식에 대한 간과는 다른 수용자들의 해석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절을 바꾸어 논의하기로 한다.

2.3. 〈박장군과 이무기〉 설화를 재해석하기

앞에서 살펴 본 수용자들의 해석을 두루 포괄하면서도 또 다른 새로운 시각을 보여 주는 것은 이현규의 아래와 같은 해석이다.

○ 이현규(남. 16세)

이무기가 강의 흐름을 막고 있을 때, 박장군의 입장에서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야 했으므로 좋은 무예습씨로 이무기를 쫓아냈다. 하지만 이무기 입장에서, 이무기가 강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마을사람들이 폭력을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무기가 마을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것이라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폭력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무기를 쫓아낸 다음 박장군의 국에 화살촉이 들어있었고 국을 버린 자리에서 딸기가 자랐으며 다시 그 자리에서 돛자리를 만들 수 있는 풀이 자라났다. 박장군의 입장에서 국에 화살촉이 들어있으면 자신이 이무기에게 잘못된 일이 생각났을 것이고 다음에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딸기는 삶아서 버렸지만 띠 풀을 보고는 방심해서 멍석자리를 만들어 깔고 자서 죽음을 맞게 됐다. 박장군은 죽을 때, 공든 탑일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혹시 이무기가 국에다 화살촉을 넣은 것이 아니라, 고등어를 화살로 잡았을지도 모르고 멍석자리 밑에서 치료할 수 없는 독을 가진 가시식물이 자라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무기의 입장으로 봤을 때, 박장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박장군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이 살면서 한 사건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현규는 이 설화의 핵심을 다른 수용자와는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파악함으로써 이 설화의 서사적 질서를 재편하여 주제를 새롭게 추출하고 있다. 이는 설화의 성근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서사적 사건을 재해석함으로써 설화가 전달하는 의미의 편폭을 한껏 개방하고 있다.²³⁾ 고등어국에서 발견된

23) "허구적 서사물의 의미는 결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잠재적인 가능성 속에서 열려져 있다. 의

화살촉은 박장군이 애써 잠재워 두었던 이무기에게 활을 쏘았던 과거의 기억(두려움)을 일깨웠고, 그에 대한 경계심이 즉각 발동된다. ‘아, 이걸 이무기가 나에게 보복을 하려는 것이구나. 이 국을 먹으면 내가 죽게 될 것이다.’라는 공포가 엄습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내부로부터 끊임없이 생성되어 박장군 자신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이다. 박장군에게는 자신 앞에 놓인 고등어국도 딸기도 모두 이무기가 자신을 향해서 되쏘는 독화살로 인식되는 것이다. 가시에 찢려서 죽어 가는 순간에도 박장군은 띠풀에서 돌아난 가시가 바로 이무기가 자신에게 되돌려 주는 독화살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박장군은 이제 모든 것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심리적 방어기제가 작동한 것이다. 위험한 것 그래서 금기가 되는 것은, 유난히 관심을 끌고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법이다. 그래서 박장군에게는 다리 밑에서 고깃국을 거름 삼아 자라난 딸기가 세상의 그 어떤 딸기보다도 더 탐스럽고 맛있어 보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잘 극복해냈다. 그런데 산 위에 돌아난 돛자리를 만들기에 딱 맞을 것 같은 튼실한 띠풀은 박장군의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자극하였다. 박장군의 영웅 심리와 강자로서의 지배욕이 드디어 띠풀에 대한 그의 경계심을 허물고 말았던 것이다. 띠풀을 말려서 수신의 신력을 제거한 후에 굳이 그것을 ‘명석자리로 만들어서 깔고 자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번에 제대로 이무기를 제압해보려는 박장군의 지배욕이 투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모든 선입견을 걷어 내고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이 설화를 곱씹어보기로 하자. 박장군의 생각이나 내면 풍경에 한눈을 팔지 말고 객관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설화에서

미는 독자의 판단과 평가에 의해 비로소 현동화 되는 것이다. 때문에 플롯 이해에는 독자 자신의 서사적 이해, 곧 텍스트 세계를 평가하고, 의미화 실천하는 양상이 그대로 투사된다. 그는 작품의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나름의 시각으로 텍스트의 의미 질서를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시각에서 작품을 재정의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재정의는 주제 서술에서 무엇을 핵심 개념으로 삼아 서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요 변인이 된다. 이는 ‘정신 활동으로서의 플롯 이해’라는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독자는 자신의 서사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최인자, 「허구적 서사물의 플롯 이해에 기반한 서사추론 교육」, 『국어교육』 122집, 한국어교육학회, 2007, 457쪽.

박장군의 화살을 맞게 된 이무기는 그곳을 떠나 물러났다고 되어 있다. 이 무기가 정말 죽었다는 확신은 어디에도 없다. 이무기가 다른 곳으로 가서 드디어 승천에 성공했을지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밥상에 올라온 고등어국에서 발견된 화살촉이 실제로 박장군이 이무기에게 쏘았던 바로 그 화살촉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에 대한 어떤 증거도 설화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 가령 박장군만이 식별할 수 있는 특별한 표시가 그 화살촉에 있었기에 국에서 발견된 화살촉이 바로 이무기의 몸에 박혔던 그것이 분명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고등어국에 그 화살촉이 들어간 이유나 경로가 이무기가 박장군에게 복수를 하기 위함이었다는 근거는 또한 무엇인가? 게다가 그 국을 먹게 되면 자신이 죽게 될 것이란 선형적 판단 역시 오로지 박장군 자신만의 짐작이고 믿음일 뿐이다. 가령 이무기의 몸에 박혔던 화살촉이 빠져나온 것을 우연히 고등어가 삼켰던 것일 수도 있고, 이현규의 생각처럼 박장군이 이무기에게 쏜 화살촉이 고등어에게 박힌 것이 아니라 그저 어부가 화살로 쏘아서 잡아온 고등어일 수도 있다. 화살을 맞고 사라진 이무기가 실제로 죽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데다가, 이무기가 실제로 변신을 하여 고등어, 딸기, 띠풀이 될 수 있는지도 모호하다. 설화에서는 이 모든 것을 오직 박장군이 그저 ‘그렇게 여겼다’라고만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저간의 상황은 사실 박장군이 일상생활에서 대면하는 사물들을 과민하게 관찰하고 반응한 결과일 수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을 보고도 놀라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다. 고등어국을 내다 버린 다리 밑에서 딸기가 돌아난 상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기름진 거름이 뿌려진 곳에서 식물이 탐스럽게 자라나는 일은 그리 이상할 것 없는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다. 그 딸기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판단 역시 박장군 자신의 일방적인 직관과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 모든 불안과 공포는 오로지 박장군 자신의 내면에서 발생한 주관적 이해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왜 박장군은 그렇게 상상하였던 것일까. 설화의 문면에서 박장군이 이무기의 복수를 의식하고 잔뜩 경계하게 되는 세 번의 계기를 서술하고 있는 도입부를 주목해 보자.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일을 잊었을 무렵이었다. 하루는 박장군이 아침밥을 먹는데, 반찬 중에 고깃국이 있었다.”

“그 국을 모두 마을 옆의 다리 아래에 뿌렸다. 그리고 남은 반찬으로 식사를 마치고 그 일은 잊고 지냈다. 그 후 또 세월이 한참 흘러서 우연히 박장군이 보니 자신이 고깃국을 버린 그 자리에 딸기가 자라나 있었다.”

“딸기송이를 모두 따서, 술에 넣고 삶아서 산으로 올라가 딸기를 모두 버렸다. 그리고 다시 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쯤 지나 가을이 되었는데,”

怨恨에 찬 靈物인 이무기가 언젠가는 자신에게 복수를 해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그 일을 잊을 만하면 어김없이 박장군에게 다시 찾아오곤 하는 것이다. 박장군이 시종일관 경계하고 싸웠던 대상은 사실 實在하는 이무기가 아니라 이무기에 대한 幻影이었던 것이다. 지속적으로 박장군을 괴롭힌 것은 이무기를 해친 것에 대한 죄책감과 그에 따른 보응에 대한 불안 심리로 분석된다. 이는 박장군의 내면 심리에 깊숙이 뿌리내린 과거 이무기 퇴치 사건에서 야기된 트라우마의 간헐적 발작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박장군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았던 이런 트라우마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는 무엇이었던가? 김진경의 해석에서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다.

○ 김진경(여. 24세)

이 설화는 매사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을 기하라는 주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 박장군은 마을에서 알아주는 명수였다. 사람들은 모두 그의 장기를 높이 사 '박장군'이라 칭송하였고, 그는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했다. 事後에 몇 번이고 이무기의 후환을 우려하며 조심하던 그를 통해 봤을 때, 이무기를 겨냥하

면서도 그것의 후환이 남을 것임을 인지하였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이무기를 명중시킨 박장군의 의로움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그런 시아버지를 모시기에 한없이 모자란 며느리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다. 고깃국에 고등어를 넣는다면 그것을 통째로 넣지 않는 이상 손질하는 과정에서 그 화살촉을 발견하고도 남았어야 할 텐데, 어찌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녀의 부주의가 엄구의 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쳤길 바랄 뿐이다. 내가 박장군이었던라도 내가 가진 능력으로 마을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앞뒤 생각 못하고 우선 나서고 보았을 것 같다. 하지만 사후에도 여전히 신중을 기울이지 못하여 이무기의 후환으로 금방 저주를 받아서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싶다.

김진경은 박장군이 이무기를 향해 화살을 쏘 때 이미 그로 인한 후환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안녕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내한 박장군의 의로움을 높이 평가한다. 인간이라면 자신이 맡은 책임을 마땅히 수행해야 한다는 선형적 전제에 따라서 설화를 해석하는 것이다. 한편 현재 젊은 미혼 여성인 김진경은, 수용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시아버지의 밥상을 차린 ‘며느리의 부주의함’을 비난한다. ‘시아버지의 밥상 차리기’라는 문제는 결혼적령기를 맞은 수용자에게 상당히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왔을 법하다. 며느리가 밥상을 정갈하게 차려서 시아버지의 건강을 돌볼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것은, 언젠가 자신도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며느리와 자신을 동일시한 결과일 것이다. 이는 수용자의 개성이 설화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요컨대 이 수용자는 박장군이든 며느리든 비극을 초래한 것은 그들의 신중하지 못함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 설화의 주제를 ‘매사에 신중하고 말은바 책임을 다하라’로 집약하는 것이다.

다시 설화내용으로 눈을 돌려 보건대, 박장군의 트라우마를 건드린 것은 밥상 위에 올라온 고등어국에서 발견된 화살촉이었다. 이를 매개로 박장군은 폭우가 쏟아지던 날에 벌어진 위급 상황과 자신이 결행한 대담한 그리

고 후환이 두려운 간 큰(?) 행위를 떠올리게 된다. 사람들이 영물이라고 여 기면서 敬而遠之하는 이무기를 자신은 겁도 없이 처리해 버린 것이다. 혹 시 이것 때문에 동티가 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한 심리를 간신히 잠재우 며 버텨 왔는데, 자신의 밥상에 오른 고등어국에서 화살촉이 발견되자 즉시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럼 그렇지.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 구나!’ 하는 자각에 박장군은 엄습하는 공포에 휩싸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렇게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른 과거의 기억과 공포가 이후로 지속적으로 박 장군을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이무기의 복수와 결부 하여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계하는 편집증²⁴⁾에 빠져들었을 수도 있다.

박장군에게 이런 모든 심리적 불안을 야기한 事端은, 고등어를 잘못 손 질한 탓에 화살촉이 들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로 시아버지의 밥상을 차려 올린 며느리의 부주의함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애초에 며느리가 그런 不淨한 고등어국을 시아버지 밥상에 올리지 않았더라면 과 거에 촉발되었던 박장군의 심리적 상처가 덧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박장군은 딸기를 버린 자리에서 돌아난 띠풀을 발견하자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한다. 그리고 구태여 그것을 가져다 찌서 말려 명석자리 로 만들어 “깔고 잔다.” 이런 행동은 이무기를 완전히 제압해 버리고 말겠 다는 편집증에 가까운 박장군의 영웅 심리가 발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숙 고해 보건대, 그 띠풀에는 본래부터 독가시가 나 있어서 명석자리로 만들기 에 부적당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앞에서 이현규가 지적한 바대로, 명석자리가 아니라 명석을 깔아 놓은 땅바닥에서 가시가 돌아났을 가능성도 역시 있다. 사실 명석은 곡식 등을 그 위에 넣어 말리기 위해 사용하거나 마당에 깔고 손님을 접대할 때에 사

24) 편집성 성격장애는 타인에 대한 강한 불신과 의심을 지니고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내어 사 회적 부적응을 나타내는 성격특성을 말한다. 편집성 성격장애를 지닌 사람은 친밀한 대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주변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과도한 의심 과 적대감으로 인해 반복적인 불평, 격렬한 논쟁, 냉담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자 신에 대한 타인의 위협 가능성을 지나치게 경계하기 때문에 행동이 조심스럽고 비밀이 많으 며 생각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미래의 일을 치밀하게 예상하거나 계획하는 경향이 있다. 권 석만, 『현대이상심리학』, 학지사, 2009, 307~308쪽 참고.

용한다. 그런데 마을을 구한 영웅인 박장군이 왜 방 안에서 요와 이불을 깔고 자는 대신에, 굳이 띠풀로 만든 명석을 깔고서 잠을 자야 했을까. 이것 역시 이무기를 온전히 제압하고픈 박장군의 집요한 욕망 때문이 아니었을까? 박장군이 이무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일찌감치 극복했다라면, 산에서 자라난 띠풀이 눈에 띄었을 리도 구태여 명석을 만들었을 리도 그리고 기어 이 그것을 깔고 잤을 리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명석에 돌아난 가시에 찢려 죽는 일을 자초한 것은 박장군 자신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3. 설화의 재해석과 현재적 의미

한스 가다머가 제안하는 해석의 공간이란 과거에 형성된 텍스트의 의미를 과거에 기대어 해석하는 동시에 그것이 현재에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를 묻는 데에서 마련된다고 한다.²⁵⁾ 그렇다면 이 설화에서 수용자가 찾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던지는 새로운 의미와 전망은 무엇일까?

앞에서 살펴 본 이 설화에 대한 수용자들의 다양한 시각과 깊이의 해석은 이 설화가 과거 오랜 시간을 통해 전승해 온 의미망 안에서 파악될 법한 것이다. 수신(수신)의 신격을 노하게 하면 해를 입을 수 있으니 경계하라[신화적 의미], 생명에 대한 살상은 업보를 남기게 되니 경계하라[불교적 의미], 영웅 심리에 휩싸여 경거망동하지 말라[修身], 시아버지 봉양에 정성을 다하라[孝], 모든 일에 끝까지 신중을 기하라[警誡]와 같은 주제파악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논의의 출발에서 이미 언급한 바대로, 이 설화는 본래 용사신 신화로서 전승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전승자들의 의식이 변화함에 따라 용사신 신화의 신성성이 퇴색하는 방향으로 서사전개가 변이되었을 것이다. 신령한 동

25) “과거를 우리 자신의 기대에 성급하게 동화하는 것은 분명 피해야 한다. 동시에 과거에 형성된 텍스트의 의미가 오늘 우리의 현재에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은 텍스트 이해의 과정에서 회피될 수도 없고, 회피되어서도 안 된다. 이 두 지점 사이에 마련된 공간이 가다머가 제안하는 해석의 공간이다.” 김정현, 앞의 논문, 23쪽.

물인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는, 인간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神聖한 존재로서 숭배되지 못하고 오히려 강물의 범람을 유발하는 유해한 존재로 인식되어 퇴치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런 변화는 水神 信仰이 약화되면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을 엿보게 한다.

이 설화를 신화적으로 접근하면, 수신의 승천을 방해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니 신성한 수신을 절대로 범하지 말라는 금기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용사신을 숭배하는 수신 신앙은 농사를 위하여 풍부한 물이 필요하기에 가뭄을 두려워하던 농경사회에서 발달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설화에서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된다. 비가 내리는 날에 물길을 막아 버린 이무기는 가뭄에 단비를 내리는 반가운 존재가 아니라, 폭우 속에서 홍수를 일으키는 불청객인 것이다. 이는 용 신격에 대한 전승자 의식의 변화가 분명한 대목이다.

강물의 흐름을 막고 홍수를 일으켜 인간을 위협에 빠뜨리는 이무기와 대적하는 박장군의 활약은 자연의 횡포(도전)에 맞서는 인간 문명의 應戰의 서사를 보여 준다. 그런데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일은 결코 인간에게 만만하지 않다. 임시방편으로 이무기를 몰아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하기 쉬운 대로 일단 생명체인 이무기를 폭력으로 제거하는 미봉책을 사용한 탓에 박장군은 결국 비극을 맞게 된다. 이런 박장군의 좌절은 궁극적으로 자연의 힘을 당해낼 수 없는 인간 문명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수용자들은 이 설화에서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가 영물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福을 내려주는 신격으로 인정하고 숭배해야 한다는 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무기는 끝까지 쫓아가서 확실히 퇴치해야 하는 위험한 대상으로 바라보곤 한다. 이처럼 수용자들은 이 설화를 신화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인간 사회의 현실적 문제처럼 바라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수용자들에게 특히 이무기는 他者인 동물에 그치지 않고, 인간처럼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주체적 존재처럼 인식된다. 설화에 등장하는 이무기는 다양한 맥락 속에

서 인간의 정체성과 인생을 반추하게 하는 타자로서 기능하는 것이다.²⁶⁾

사실 설화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인간의 형상을 보여 준다. 동물의 욕망은 곧 인간들의 욕망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²⁷⁾ 수용자들은 대개 이무기와 박장군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을 동물(자연)과 인간(문명)의 대립으로 여기기보다는, 현실사회에서 일어나는 개인 간의 갈등으로 해석하곤 한다. 수용자들이 제기한 문제는 대부분 우리의 현실생활을 반추한 결과인 셈이다. 어떤 수용자는 사회적 강자와 약자의 문제를 제기하는 바, 아무리 강자라고 해도 약자를 우습게 보면 큰코다친다는 교훈을 읽어낸다. 여기서 박장군이 사회적 强者이고 이무기가 弱者라는 판단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시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의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유사한 상황에 대해 재고해 보는 기회를 마련한다.

수용자들은 박장군이 과멸한 이유를 그가 외교적 협상능력을 갖춘 정치영웅이 아닌 무력만 앞세운 전쟁영웅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박장군이 일방적으로 활을 쏘아 이무기의 승천 욕망을 좌절시켜버린 것은 무모하고 부당한 처사였다면서 한 목소리로 비난한다. 그리고 박장군이 이무기를 무조건 공격할 것이 아니라,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강의 범람을 막는다든지 이무기와 대화의 시도를 하여 이무기가 자진하여 물러나도록 설득했어야 옳다고 주장한다.

이런 문제의식은 현대적 관점에서 중요한 쟁점을 부각시키는데, 사회공동체의 公益(강의 범람을 막아 마을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과 사회적 소수자의 욕망(이무기의 생존권과 승천욕구)이 충돌할 때에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령 지배 권력이

26) “우리는 동물설화를 통해서 동물이 아닌 인간을 이해하게 된다. 인간과 다른 속성을 지닌 동물을 보면서 인간의 주체성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고, 인간의 형상을 내포하고 있는 동물을 상징하여 인간을 동물에 비추어 볼 수도 있고, 인간과 동물을 함께 등장시켜 주체와 타자의 관계에 대해 물을 수도 있다. 설화 속 동물은 이렇게 다양한 맥락 속에서 항상 인간을 되 돌아보게 하고, 그 속에서 궁극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인간 주체성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제기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 같다.” 심우장, 앞의 논문, 109쪽.

27)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인간이다. 따라서 동물의 욕망은 곧 인간의 욕망이 되고, 인간의 욕망 또한 동물의 욕망이 된다.” 심우장, 앞의 논문, 114쪽.

公權力을 앞세워 사회적 취약 계층의 생존권을 무력으로 위협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거주지에서 내몰려 생존권을 위협받는 도시철거민의 입장은 이 설화에서 강제로 퇴치 당하는 이무기의 입장에 비견될 만하다. 수용자들의 주장을 현실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대략 이렇게 정리될 것이다. ‘도시행정에 있어서 공권력이 무력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제 철거를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부당한 것이다. 철거민들이 이주해 갈 수 있도록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해 주거나, 거주공간을 찾아서 스스로 떠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설득하고 타협해야만 한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욕망을 외면하고 묵살하는 것이 결국 사회공동체 전체의 存亡을 위협하는 결과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이무기는 용이 될 수 있는 존재(靈物)임을 상기하면서, 얼핏 사회공동체의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간주되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잠재 능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적 배려가 절실함을 강조하기도 한다. 수용자들은 집요하게 복수를 시도하는 이무기의 원한에 주목하여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그렇게까지 복수에 집착하겠는가?’라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면 그에 대한 후환이 따르는 법이니 타인의 원한을 살 만한 일은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복수하려고 덤비는 이무기의 집요한 욕망을 박장군이 계속 강하게 탄압하고 묵살하면서 문제 해결을 회피한 것은 비겁한 태도인바, 죽은 이무기를 위해 慰靈祭라도 지내서 원한을 풀어주었어야 마땅하다는 인식을 보인다. 사회적 소수자의 욕망을 묵살함으로써 원한을 샀다면, 가해자가 겸허하게 불행한 사태의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뒤늦게라도 사과함으로써 피해자를 위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다른 수용자는 새로운 시각에서 이 설화의 의미를 숙고하고 있다.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公共善을 위한 개인의 희생·봉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사회적 정의가 실현될 때 사회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자발적 희생과 봉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인데, 사회적 현실이 그렇지 못함을 개탄하는 것이다. 이는 수용자가 관찰한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이 설화해석에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사람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심리적 상처 때문에 파멸을 자초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극복하고 치유해야 한다는 心理治癒의 중요성을 강조한 수용자의 해석이다. 이는 박장군이 심리적 상처로 인해 이무기의 복수에 대한 편집증적 피해의식으로 고통 받다가 결국 죽음에 이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외부적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해간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 세상과 타인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부정적 시선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한다는 깨달음인 것이다.²⁸⁾ 수용자가 보여 준 이런 심리적인 해석을 통해 문학작품이 갖는 인식의 확장과 심리치유의 기능을 재발견하게 된다.²⁹⁾

4. 마무리

설화의 재해석 즉, 고전의 재해석은 옛것에 대한 단순한 회고도 반추도 아니다. 그것은 그저 부정적인 보수주의일 뿐이다.³⁰⁾ 溫故知新이 오롯이 이루어질 때 고전문학작품이 古典으로서 살아남게 되는데, 구비설화의 지속적인 전승은 전문연구자보다는 일반전승자들의 설화 해석과 수용 능력에 달려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비설화에 대한 젊은 수용자들의 해석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구비설화가 지니는 의미의 개방성의 편폭이 넓어지

28) 임치균은 이런 심리적인 문제에 주목하여, 고전작품에 나타난 ‘오해로 인하여 아내의 정숙함을 의심하는 남편’의 심리문제를 문학치료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바 있다. 임치균, 『‘아내의 정숙함’을 의심하는 남편에 대한 문학치료적 접근방식 고찰』, 『문학치료연구』 제22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107~130쪽.

29)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근간에 정운채 교수를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문학치료학에 대한 관심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 및 서사의 주제와 문학연구의 새 지평』, 『문학치료연구』 제21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참조.

30) “우리는 고전과 같은 전통의 영향 하에서 ‘새로운 것, 서로 다른 것, 진실한 것’을 향해 개방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전망 없이 고전에 다가갔을 때,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아무런 목소리도 들려주지 않을 것이다. 지나간 것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 그것을 우리는 부정적 의미의 보수주의, 곧 수구주의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전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고전이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는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가의 문제, 곧 실존적 문제와 상관적인 것이다.” 김정현, 앞의 논문, 24쪽.

는 현장을 지켜보았다. 그 결과 구비설화는 현재적 가치를 지닌 인문학적 사유의 寶庫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연구를 통해 우리의 문학 교육 현장에 학생들의 주체적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재확인하였다.³¹⁾ 그러나 사실상 학교에서의 문학 수업은 수용미학에서 기대한 것처럼 실제로 진행되기가 어려워, 敎授者는 해당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소개하면서 텍스트를 다시 분석하고 설명하게 된다.³²⁾ 본고에서 수용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보면서 필자가 그 내용을 설화 텍스트에 의거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노력한 이유는, 자칫 설화 작품의 해석이 수용자들의 주관성에 매몰되어 텍스트의 주제로부터 너무 멀어지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앞으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밝혀둔다.

31) 필자는 이 점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해왔으며, 문학치료에 관심을 둔 많은 연구자들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이인경, 「<구북여행> 설화의 문학치료학적 해석과 교육적 활용」, 『고전문학연구』 3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 이인경, 「문학 감상에서의 주체와 타자-〈훈취〉설화의 문학치료학적 감상과 교육적 가치-」, 『국문학연구』 16호, 국문학회, 2007 참조.

32) “문학교육의 차원에서 볼 때, 수용미학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독자에게 각자의 독서경험에 맞게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 다. 하지만 필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문학수업은 사실 수용미학에서 기대한 것처럼 진행되 기 어렵다. 상이한 독서결과로 인해 한편으로 교수자와 학생 모두 자유로움을 느끼지만, 다 른 한편으로는 함께 읽은 텍스트에 대한 일종의 공감대가 없는 상황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교수자는 해당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 능성을 소개하며, 텍스트를 다시금 분석하고 설명하게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수업의 중심은 독자의 독서결과와 과정보다 텍스트에 대한 특정한 해석으로 옮겨진다. 수업참여자는 자신 의 독서과정을 관찰하고 의식의 변화를 추적하기보다는 자신의 독서결과가 교수자와 기존 의 그것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상이한 독서결과와 전문 적인 해석들이 소개되고 논의되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경우에 텍스트와 교수자가 해석의 ‘적 절성’을 판단하는 심급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용현, 앞의 논문, 58쪽.

참고문헌

1. 자료

『韓國口碑文學大系』 전8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 단행본

권석만, 『현대이상심리학』, 학지사, 2009, 1~606쪽.

C. 리처드 팝 편, 이관용 외 역, 『人間記憶 및 認知研究法』, 법문사, 1988, 1~484쪽.

Stephen K. Reed, 박권생 옮김, 『인지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0, 1~568쪽.

조지아 윈키, 이한우 역,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 사상사, 1993, 11~280쪽.

가다머, 한스 게오르크, 이길우 외 역, 『진리와 방법 : 철학적 해석학의 기본특징들』, 문학동네, 2000.

양유성, 『이야기치료』, 학지사, 2004, 1~311쪽.

정운채, 『문학치료의 이론적 기초』, 문학과 치료, 2006, 1~425쪽.

3. 논문

김기욱, 「보은설화의 서술양상과 현실인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158쪽.

김용덕, 「<상사백설화>의 구조분석과 의미 연구」, 『한양어문』18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0, 351~381쪽.

김용현, 「해석학 기반의 독일문학 연구와 교육에 관한 고찰-수용미학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51집, 한국독일어문학회, 2010, 45~65쪽.

김정현,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의 관점에서 본 고전과 고전해석」, 『해석학연구』 23집, 한국해석학회, 2009, 1~29쪽.

박 진, 「動物 報恩 說話에 나타난 慾望 表出과 處理 樣相」,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1~108쪽.

서상문, 「성윤리 교육을 위한 리피르의 해석학적 이야기」, 『교육철학연구』 제33권 1호, 한국교육철학학회, 2011, 105~128쪽.

심우장, 「동물설화와 인간주체와의 과정-〈까치의 보은〉설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107~135쪽.

심재경, 「야담집 소재 동물 퇴치담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90쪽.

윤친근, 「물의 사상, 물의 문화」, 『동서철학연구』 59집, 한국동서철학회, 2011, 38

7~416쪽.

- 이국환, 소설의 치유기능과 카타르시스, 『석당논총』 50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497~536쪽.
- 이민용, 「서사 담화와 스토리텔링 치료-강박증 치료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뫼히너와 현대문학』 36, 한국뫼히너학회, 2011, 35~301쪽.
- 이인경, 「<구복여행> 설화의 문학치료학적 해석과 교육적 활용」, 『고전문학연구』 3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263~306쪽.
- 이인경, 「문학 감상에서의 주체와 타자-<혼취>설화의 문학치료학적 감상과 교육적 가치-」, 『국문학연구』 16호, 국문학회, 2007, 103~130쪽.
- 이인경, 「‘제사설화’에 대한 신세대의 해석과 구비전승의 향방」, 『국문학연구』 20호, 국문학회, 2010, 157~189쪽.
- 이인경, 설화전승자의 의식변화와 ‘제사설화’의 미래 -<644-3 제사 차린 정 부족 하다고 해 끼친 혼령>설화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52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0, 61~95쪽.
- 이지영, 「龍蛇神昇天譚의 측면에서 본 <평과 구렁이>」, 『고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185~225쪽.
- 이한나, 「<용설화>의 전승의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9, 1~80쪽.
- 임치균, 「아내의 정숙함」을 의심하는 남편에 대한 문학치료적 접근방식 고찰, 『문학치료연구』 제22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107~130쪽.
-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247~278쪽.
-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 및 서사의 주체와 문학연구의 새 지평」, 『문학치료연구』 제21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233~252쪽.
- 최인자, 「허구적 서사물의 플롯 이해에 기반한 서사추론 교육」, 『국어교육』 122집, 한국어교육학회, 2007, 439~465쪽.
- 황수영, 소통의 이론과 그 철학적 기반 -리콤피르의 해석학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제3호, 한림과학원, 2009, 69~98쪽.

A Study on the various interpretations about the folktale *Park Jang-goon and Imoogi* by critical analysis of the reports of younger generation

Lee, In-gyung

This paper examines the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e folktale named *Park Jang-goon and Imoogi* by critically analyzing the reports of younger generation who appreciated the story. The folktale is a story about "Park Jang-goon" living in a village which almost got flooded because "Imoogi" blocked the river. By shooting an arrow, Park Jang-goon could make Imoogi leave and keep the village safe. Since then, Park Jang-goon kept his eyes on its revenge. Nevertheless, Park Jang-goon was eventually killed because of the incident. According to academic analysis, this folktale includes not only the mythical sanctity of the water-deity(Imoogi), but also the legendary tragedy of the hero(Park Jang-goon)'s death.

The young appreciators have many different opinions for the story. Usually they interpret the messages which the story carries, from the perspective of an anthropocentric values, which shows a change in the young appreciators' perception of the mythical thinking. That is, these days, Imoogi is not considered to be a sacred water-deity any more.

Many appreciators pointed it out that Mr. Park's death had resulted from his violence against the Imoogi; also it taught us to be considerate of the powerless minorities in society, in case of a conflict between the public good of majority and the needs of minority. Such interpretations of the story effectively teach us lessons about solving the problems in our modern society.

By the way, the other appreciator supposed that general Park's death had not

come from the revenge of Imoogi, but it had been caused by his nagging anxiety neurosis which had become strongly obsessional through out his lifetime. This supposition let us realize the importance of healing for psychological trauma, and the usefulness of literature therapy, as well.

In conclusion, with this study, it is proved again that the folktales still have classic values by modern bearers to interpret, which can create new and serious messages for now.

keyword : folktale, myth, legend, interpretation, classic work, literature therapy

| |
|---|
| 접수일자: 2012. 3. 31 심사기간: 2012. 3. 31~2012. 5. 20 게재결정: 2012. 5. 20 |
|---|

부록 : 〈박장군과 이무기〉

신현조 구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7』, 326~329쪽.

밀양군내 여언데(여긴데) 초동면이라 카는 데가 있어, 초동면. 처음 초짜(初字), 한가지 동짜(同字), 초동면 거어(거기) 상당골 박씨라 카는 사람이 하나 나 있는데, [조사자 : 예, 상당골] 거 참 인자 거 마실 이름이지, 상당골 박씨라 카는 사람이 한 사람 나았는데, 이 사람이 뭔가 역시 장군이더라 이기여(이것 이야).

하루는 저녁(저녁밥)을 묵고 턱 인자 독에 나가 있은끼네, 그 때 비가, 연사일로(4일을) 부엌던 비가 계속 디리(마구) 왔는데, 그 강물이 말이지 참 남강(1)(주)濫江. 강물이 넘침.이 되 가주고 독이 넘칠 정도로 막 니러가는데(내려가는데), 그 주민들이, 강변의 주민들이 다 저 독 터지른 우리가 죽는다 카고 아우성을 치고 말이지 이카는데(이러는데).

그 때사마자(때마침) 강에 뗏이 가로막는 물건이, 짐승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러이까(그러니까) 막으이끼네(막으니까) 역시 마 독이 터질라 카는데, 저 녀(놈)을 없앨라 카이(하니) 없앨 사람이 있어야제. 아이라도(아니라도) 위태로운데, 막으이끼네 지금 강물이 터질, 저 독이 터질라 카는데, 막 주민들이 죽는다고 막 고함을 질러 썩는다.

그 때 참 박 장군이라 카는 사람이 참 힘이 역사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하든 무력(武力)인데, 그 때마(만) 하더라도 칼, 활, 이거로(이것을) 좋아했다 말입니다. 이래서 활을 가주고 나가서 보이끼네(보니까), 강에 참 용 몬 된 강철이(이무기)가 말이지, 일편(한편) 거 이십이라 카더마는, [조사자 : 예, 이십이라고 하지요] 옳지 그래, 저 녀이 가로막아서 터질라 카는데, 저 녀를 쏘아 죽여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활촉을 내 가주고 참 쏘았다 말이지. 쏘안끼네, 저 녀이 마 한 차리(대) 맞고 나인끼네(나니까) 고마 마 구부로(구비를) 치고 치더마는, 마 여(여기) 인자 가로막았던 짐승이 내빼인끼네(도망가니까), 물이 저절로(저절로) 니러갈(내려갈) 꺼 아입니까? [조사자 : 예.] 마 물이 쭈욱 빠진다.

그래 인자 마 그 주민들이 양 강, 강가 양쪽(양쪽) 사는 사람, 주민들이 막 박수로(를) 치고, 살았다고 막 참 환호성을 치고 막 이래 됐는데.

그 뒤에 인자 마 잊어뻘지(잊어버렸지). 그래 놓고 인자 거 난리 하나는 인자 평탄시킨(평정한) 택(쌈)이지. 잊어뻘는데.

하루는 그래 인자 아침 상을 떡 주는데, 고기에, [말을 고쳐] 참 저저 고기 국을 끓이(끓여) 주는 기라. 그래 무울(먹을) 인자 뿔인고, 무슨 국인고 싶어서 이래 젓어(저어) 보이까(보니까) 그 고등어라 카는 고긴데, [조사자 : 고동예 (오)가 고등어. [조사자 : 생선가 응, 생선. 국인데, 그 건들리는데 뿔이 떨걱떨걱 소리가 나는 기라. 젓어 보니까, 자기가 썼던 활촉이 그 밥그릇에, 그 국그릇에 담기 왔어. 그래서 물었다. 그래 방문을 열고, “아나.”

그래 나왔어. 누구냐,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든 자기 미느리(머느리)다 이기 야(이거야).

“거 오늘 야(야), 그 국에, 그 무슨 고기를 샀으며, 국 안에 와(왜) 이거 우짤지 그 와 활촉이 들어있느냐?”

그래 인자 그 주민들이 알리기를,

“예, 아 거 참 아무날 장에 가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고등어를 한손 샀더니, 그래 그 고기국입니다.”

“옳다, 요놈이 날 원수 갚을라고 카구나.”

자기 생각에 말이지,

“예, 이거, 이거 물리라(가져가라). 이거 안 묵는다.”

그 가족들 못 묵도록 하고, 그래 그 국을 말키(모두) 퍼다가, 그 맛종기 끓인 국을 갖다가 저 다리 밑에다가 뿌렸는 기라. 묵고 참 뿔 남은 인자 반찬칸(과) 식사를 마치고, 그마 또 지내뻘다.

지내뻘는데, 인자 시, 시기는 흘러서 언젠가 당인까(당으니까), 아, 고기국 부어 내뻘린(내버린) 그 자리에 거 딸(딸기)이 하나 있는 기라, 딸이, 딸기가 하나 있는 기라. 참 잘 커 가지고, 익어 가지고, 막 송이송이 달리가지고, 막 묵기 좋기 되 가 있는 기라.

‘옳다.’ 이거 또 장군이 또 생각하기를, ‘요놈이 날로 원수갚을라고 이 카는 데 안 묵는다 마.’ 그래 말키 따 가지고 삶아 가지고 마, 따 가지고 밤키 싸가

(짜서) 산을 가 가지고 또 갖다 내비리(내버려) 뵈는 기라.

갖다 내비리 놓은꺼네, 그라고 또 말아뵈는 기라. 그래 인자 얼맨가 있다 가실(가을)이 떡 뵈는데, 또 그 자리에 뵈이 올라왔는고 하면, 갈(갈대) 이라꼬, 갈, 띠 이거 말이지, [방바닥을 두드리며] 띠 이거, 이거, 자리 이거, [조사자 : 예, 갈.] 이기(이게) 마 올라오는데, 참 무성하이(무성하게) 잘 나와 가지고 좋고 말이지, 좋은 기라.

그래 인자 생각에, ‘에래이 저거는 말이지 풀인데, 저거는 마 비이다가(베어) 내가 자리를 맨들어 갈아도 하등의 지가 원수를, 복수를 못 할 꺼 아이가 말이지.’ 그래 인자 이래서 수하(手下)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그 갈을 갖다가 비(베어) 와서, 썬 말라(말리어) 가지고, 그래 참 이거 명석자리를 썬어.

짜 가지고 자기 자는 숙소에 피이(피) 놓고 누우 자기 시작한 기라. 그래 잤어. 참 밋(밋) 날 밋일(며칠)을 잤는데, 하루는 난데없이 말이지, 그래 등이 뜨끔하는 기라 그래서 만치(만져) 보인꺼네(보니까), 자기가 밋 날 밋 일 거이(거기) 깔고 자던 명석자리 거게서 까시(가시)가 하나 썰렸어.

‘그 이상하다.’ 빼고 말아 뵈는데, 그것이 썰린 그 자리에, 시시각각으로 자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공기고(끓고) 마 혈기 시작하는데, 마 감당을 문 하는 기라. 아무 마 천종만약(百種萬藥)이라 하디이(하더니), 아무 약을 써도 안 돼. 그래 그 질로(길로) 그 명석자리 깔고 잔 그 등창으로 말미암아서 상당골 박장군이 죽었어. 그러이 거 미물 짐승이라도 원수를 갚자 카른 꼭 갚고 만다는 전설이지요.